

강의 계획서

(2011. 봄학기)

* 교과목 : 한국의 미용문화 세미나

* 교수수 : 김건태

개화기로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의 미용문화 역사를 알아보고 미용인의 자세

* 목표
와 경영전략에 관하여 이론을 연구하고 심도 있는 발표/토의를 통하여 미용문화를 탐구한다.

| | |
|------|-------------|
| * 평가 | - 시험 50% |
| | - 출석 20% |
| | - 과제 15% |
| | - 발표·토론 15% |

* 참고문헌
 - 주교재 : 한국미용100년(김수정, 동서교류)
 - 부교재 : 미용문화사(정현진, 광문각)

* 내용

| 주 | 주제 | 내용 | 교수방법 |
|---|---|---|-------------------|
| 1 | 개화기(1894~1909년) 신문물의 수용과 여성의 의식변화 | - 종교의 전래 - 여성의 개화 - 개화기의 여성교육기관 | 오리엔테이션 강의(PPT) |
| 2 | 단발령과 고종의 삭발 | - 개화기-신사유람단 - 개화부랑인과 장발승 - 이발소의 시초-개화당제조소 | 강의(PPT) 발표/토의 |
| 3 | 개화기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 - 가체(다래) - 대안문과 배정자 | 강의(PPT) 발표/토의 |
| 4 | 신여성과 패션의 변화 | - 풍파두르 스타일 - 고순영과 하란사 | 강의(PPT) 발표/토의 |

| 주 | 주 제 | 내 용 | 교수방법 |
|----|--|---|------------------|
| 5 | 일반여성들의 머리모양 | - 쪽진머리형 - 엎은머리형 - 댕기머리 예찬 | 강의(PPT) 발표/토의 |
| 6 | 외래화장품(박래품)의 수입 | - 분매방식의 판매 - 신식화장품과 화장법 | 강의(PPT) 발표/토의 |
| 7 | 중간고사 | | |
| 8 | <u>일제시대(1910~1944년)</u> 일제시대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 - 장발의 재등장 -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 유행 헤어스타일 - 30년대 중반 이후-퍼머넌트의 유행 | 강의(PPT) 발표/토의 |
| 9 | 유행제조소-화신미용부 | - 화신미용부의 손님들 - 화신미용부의 샴푸와 퍼머가격 - 엽주미용실 - 최초의 미용사-오엽주 | 강의(PPT) 발표/토의 |
| 10 | 신체제와 사치품금지령 | - 몸뻬의 등장 - 사치품금지령 이후 여성패션의 변화 - 퍼머넌트의 금지 | 강의(PPT) 발표/토의 |
| 11 | <u>해방~1950년대</u> 50년대의 헤어스타일 | - 50년대 초.중반-숏 커트 스타일의 중성적 이미지 - 50년대 후반-롱 헤어의 여성적 이미지 - 부활 스타일과 업 스타일 | 강의(PPT) 발표/토의 |
| 12 | 미용교육의 역사 | - 미용사 자격증의 개설 - 미용고등기술학교 - 미용 대중화를 이끈 전도자 (권정희와 임형선) | 강의(PPT) 발표/토의 |
| 13 | <u>1960~1970년대</u> 우리나라 최초의 헤어샾 | - 최초의 헤어샾 - 가발의 유행 | 강의(PPT) 발표/토의 |
| 14 | <u>1980~1990년대</u> 미용산업의 발달 | - 미용실의 폭발적인 증가 - 미용실의 유행을 선도하는 강남시대 - 프랜차이즈의 등장 | 강의(PPT) 발표/토의 |
| 15 | 기 말 고 사 | | |

제1장 신문물의 수용과 여성의 의식변화

개화기 연대사

강화도조약(1876)(병자수호조약) 체결로 인한 개항과 함께 새로운 서구문물이 수용됨으로써 조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물결속에 유입됐다.

이후 개화기 연대사는 다음과 같다. 1882년-임오군란, 제물포조약 체결 1883년-태극기를 국기로 선정 1884년-우정국 설치, 갑신정변, 한성조약 체결 1885년-광혜원 설치 1885년-거문도사건, 배재학당(1885) 설립 1886년-이화학당(1886) 설립, 육영공원(1886) 설립 1887년-새문안교회(언더우드) 설립 1889년-조병식, 방곡령 선포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흥법 14조(1894) 제정 1895년-을미사변, 단발령 선포, 을미의병 1896년-서재필:독립신문 창간 1896년-독립협회 설립, 아관파천 1897년-경인선 철도 기공, 대한제국 성립 1898년-만민공동회 개최 1898년-매일신문 창간 1900년-경인선 철도 개통 1901년-제주 민란 발생 1903년-대한YMCA 창립 러일전쟁(1904) 발발,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1904) 을사조약(1905) 강제 체결, 장지연: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발표, 손병희: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통감부 설치(1906), 이토 히로부미 부임 1907년-국채보상운동 시작 1907년-혜이그밀사사건, 한일신협약 체결 1908년-전명운·장인환, 스티븐스 저격 1908년-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1909년-안중근: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일병합조약(1910)

개화기의 교육

1. 시대적 배경

조선은 오랫동안 성리학을 정치적 지도 이념으로 하고 중국 대륙과의 사대적 외교를 통하여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말기에 대내적으로 집권층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 대외적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조류와 이에 편승한 일본의 침략 야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를 맞게 되고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외세에 의해 강요된 개방은 큰 대화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커다란 민족사적 시련을 맞게 되었다.

문화개방에 반대하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과 임오군란, 개혁파의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개혁, 민비시해와 을미사변, 각지에서의 의병운동, 아관파천, 대한제국의 성립과 멸망 등 숨가쁜 정치 사회의 격변은 끝내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국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당하기에 이른다.

2. 정부주도의 교육개혁

유길준은 서구 여러 나라를 다녀와 [서유견문록]을 쓴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의 발달된 기술문명을 접한 개화사상가들은 개화의 선결 요건은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도입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고,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자 정부 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낀 것은 외국어 교육이었다. 독일의 뤼렌도르프가 세운 통번학교와 정부가 세운 육영공원은 바로 그와 같은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제2장 단발령(斷髮令)과 고종의 삭발

단발령(斷髮令)

단발령(斷髮令)은 김홍집 내각이 고종 32년인 1895년 음력 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에 공포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다.

백성들의 반대

당시 내세운 단발의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내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을 끊음으로 민족정서를 약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고종이 솔선수범하여 태자와 함께 먼저 머리를 자르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단발하도록 했으나, 일반 백성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오는 유교에서는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즉, 사람의 신체와 턱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는데 단발령이 내려지자 "손발은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자른다"는 유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사회적으로도 작은 혼란을 야기했다. 유교 윤리가 일반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조선사회에서는 "신체·머리털·살갗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서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 그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사회적 혼란과 단발령

당시의 민규는 동학농민운동과 뒤이은 청일 전쟁으로 온통 쑥대밭이 돼 있었고 급기야 1895년 10월에는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당하고(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넉달후인 1896년 2월에는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아관파천) 등 비참한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단발령 강요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은 개화 그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까지 발전했고, 또 단발령이 일본을 본따 만든 제도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반일 감정으로 이어졌다.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는 전국 각지의 의병운동으로 전개됐고, 을미사변과 함께 의병운동의 결정적 기폭제 구실을 했다.

실패한 단발령

결국 당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단발령 강요와 이에 대한 백성들과 유생들의 저항으로 김홍집 내각은 국정개혁을 결실시킬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다. 대신에 이범진, 이완용,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한 친로(親露)내각이 등장하게 됐다. 새 내각은 그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단발령을 철회하고,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단발령은 일단락됐다.

제3강 개화기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1.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머리의 변천사

여성의 머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한 시대가 여성에게 원하는 가치관은 여성의 머리 모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옛날에는 머리 모양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기도 했고 결혼의 유무를 나타내기도 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삼국시대의 머리 모양은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옛날부터 남자보다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훨씬 복잡했는데 TV 사극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흔히 보는 ‘얹은머리’나 ‘쪽머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해오던 헤어스타일이다.

고구려에서는 얹은머리나 쪽머리 외에도 풀기명 머리(머리를 셋으로 나누어 한 다발은 뒤로하고 두 다발은 좌우의 볼쪽에 늘어뜨리는 머리모양)와 묶은 중발머리(짧은 머리를 뒤에서 낮게 묶은 머리 모양)가 널리 퍼져 있었다.



백제에서는 기혼과 미혼의 구분이 머리 모양에 드러나는데 처녀들은 한 가닥으로 길게 머리를 땋아 늘이다가 혼인 후에는 돌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었다. 신라는 문현상의 기록으로 볼 때 얹은머리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나라에 예물로 보낼 만큼 가발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머리 모양이 신분의 구별 없이 동일했다. 삼국시대처럼 얹은머리와 쪽머리가 가장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었지만 귀밀머리를 실타래처럼 틀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움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했다. 오른쪽 어깨에 드리운 귀밀머리는 고려시대 여성들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자 사랑스러움을 강조한 머리모양이다.

머리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화려한 장식을 추구한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는 우선 왕가와 양반, 평민, 기생 등 신분과 계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머리모양이 달랐다. 처녀들이 많이 하는 귀밀머리의 경우도 양반가의 규수들은 귀밀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머리 모양 중 가장 화려한 머리는 왕비가 정복차림에 얹는 떠구지 머리로 다리(가발)를 7개 얹는 궁중여여머리에다 나무를 꺾어 만든 장식용 머리를 얹는 형태의 머리이다.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얹은머리를 크고 높게 할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 처녀들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은 땡기머리이다. 처녀들은 땡기머리를 하고 있다가 혼인 전날 관례에서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음으로써 부녀자들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때 신부의 머리를 얹어주는 사람의 손을 ‘복수’(福手)라고 했는데 신부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엄선해서 골랐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초청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때에는 여성들의 머리가 아직 처녀들은 땡기머리, 부인들은 쪽머리가 대표적이었지만 1920년대 최초의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가 등장하면서 점차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헤어스타일은 여성의 자의식을 드러낸 단발머리이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 여성들이 심기일전을 위해 단발스타일을 개발, 전세계적으로 퍼졌

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단발을 한 여성은 강향란이나 강명화 같은 기생들이었다. 남성들의 단발이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과 달리 이 시대 여성들의 단발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전통파괴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처음에 단발을 한 여성들이 기생이었다는 신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의 단발은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여성의 자의식을 드러낸 선구적인 행동이었다.

제4강 신 여성과 패션의 변화

1. 루이15세의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풍파두르부인(Marquise de Pompadour)

그녀는 프랑스왕 루이15세의 정부입니다.

루이15세가 여인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계시죠? ^ ^

루이15세의 총애를 받아 후작부인의 칭호까지 받으며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파리출생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때부터 문학과 미술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녀는 사촌이었던 샤를 프랑수아 기욤 르노르망 테티올과 174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뒤인 1745년 2월 23의 나이로 루이15세의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관례에 따라 궁출입 자격을 받게되고. 9월 베르사이유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장 마르크나티에 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743년에서 1745년 사이 그렸던 수많은 여성 초상화에 사용하던 방식그대로 표현되었고. 특히 풍파두르 부인을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의 모습으로 표현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당시엔 모델을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속 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풍파두르 후작부인이 들고있는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 그리고 상체에 두르고 있는 동물가죽보이세요?

이것은 그녀가 사냥의 여신으로 표현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복제화와 모사작이 여러점 제작되었습니다.

국왕의 사랑을 담뿍 받던 그녀는 1751년 자신의 동생을 궁전 관리부의 총감으로 임명하여 왕의 예술관련 정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 그림을 동생에게 선물하게 되죠.

또한 궁안에서의 미술 후원가이자 수집가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루이15세의 예술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루이 15세와 풍파두르 부인의 연인관계는 1752년에 끝났지만.

그녀는 1764년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루이15세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는 오랫동안 소실되었다고 알려졌다가 1970년 한 경매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2003년 베르사이유궁에서 소장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또, 그녀는 당시에 위험사상이라고 간주되던 계몽철학에도 관심을 가져.

<백과전서>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사치를 다한 자신의 저택을 각처에 건립하여, 동양풍으로 장식하며 공예품을 수집합니다.

그것이 미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도 있지만 그녀의 외교혁명이 7년전쟁의 실패로써 수포로 돌아가고, 오랜생활에서 소모한 막대한 낭비등이 나중에 프랑스혁명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5장 일반여성들의 머리모양

1. 쪽머리

쪽머리는 가체금지령 때문에 보편화된 머리모양이다. 이때부터 궁중과 사대부가 사이에서 널리 하게 되었다. 역사가 오래 된 만큼 굴곡도 심하다.

쪽이라는 말은 다함께, 한마음으로, 감싸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북방민족의 공통어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물과도 일치한다.

진시황 묘에서 출토된 시녀 토용(土俑)이나 한나라 목용(木俑), 초나라 비단그림, 그리고 쌍영총이나 안악2호분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쪽머리는 쪽이라는 말의 어원과 일치한다. 비녀가 없는 것으로도 공통점을 이루는 이들 쪽머리는 감싸맸거나, 묶었거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시녀 토용은 명칭이 동심계(同心髻)이다. 동심계는 삼국시대의 쪽머리이며, 1669년 조선왕조 현종 때 경주부사 민주면의 <동경잡기>라는 책에는 신라 때 북쪽이 불안하게 느껴져 부녀자들로 하여금 뒷머리에 머리를 뭉치게 해서 북계(北髻)라 부르게 한 것이 쪽머리를 있게 한 유래가 되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북계는 그래서 후계(後髻)라는 말로 다른 문헌에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여성 선생이 최초 복식사 저서인 <조선복식고>에서 쪽머리를 북계라 표기해 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동경잡기>에도 쪽에 비녀를 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고려시대 불화에 비녀를 꽂은 쪽머리가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당시 교유가 있던 송나라의 역사서인 <송사(宋史)>에 고려 여인들이 쪽에 비녀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다른 중국 역사서에 비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기록이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쪽머리는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비녀가 없이 뒷머리에 짧게 해서 묶거나 감쌌던 것으로 보이며 낮고 작게 해서 서린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궁중의 여인들이 외출할 때 비녀를 한 쪽머리에 족두리를 착용하는 관습이 시작되고 이런 관습은 조선에까지 이어져 계속 궁양(宮樣)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가체금지령 때 가체를 금지시키고 궁양을 권장하자 반발이 생겼고 이에 불편한 족두리를 벗고 쪽머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쪽머리는 치장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다리를 덧대 크게 하고 비녀와 꽃이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꽂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쪽은 말기로 가면서 궁중과 사대부가를 제외한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낮고, 작게 때로는 두개를 만들어 작은 비녀를 꽂은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크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제6장 외래화장품(박래품)의 수입

1. 근대 이후 화장의 모습

■ 1900~1930년대

강화도 조약(1876년)에 따른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는 신식 메이크업 테크닉과 화장법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재래의 미용법,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 유통방식은 새로운 화장품과 화장법으로 변화되었다. 재래에 화장품을 팔던 육의전이 붕괴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분전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육의전 붕괴 이유에는 외국으로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수입상품의 영향도 컸는데, 처음에는 주로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유입되었으나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에는 프랑스를 주로 한 유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수입화장품은 주로 크림, 백분, 비누, 향수 등이었는데 포장과 품질이 우수하여 여성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상품의 한 예가 박래품인데, 하지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거의 상류 여성층에게만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6년에 등장한 국산 최초의 관허 1호 화장품 '박가분'은 저렴한 가격과 잘 팔리진다는 특성 등으로 선종적인 인기를 끌었다. 1922년에는 정식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 '박가분제조본포'라는 이름으로 등록허가를 받기도 했다. 박가분의 성공으로 잇따라 미용백분과 서울분 배달 기름(머리), 연부액(미백로션), 유액(로션), 연향유등도 시판되었다. 하지만 박가분은 납 성분이 들어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냉았고, 또한 1920년대 말부터 국내로 밀입된 일본의 고급 화장품에 밀려 결국 1937년 박가분은 사라졌다. 그 후 여성 일본 유학생 오엽주가 종로 화신 백화점에 처음으로 미장원을 개업하고 새로운 메이크업 테크닉과 바니싱 크림 (흡수가 잘 되는 크림, 무유성 크림) 등의 신식 화장품을 소개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신식 화장법은 입술연지의 색깔이 진해지고 향수와 비누향내가 강렬했다. 이 시기의 신여성은 짧아진 치마의 길이와 하이힐을 신고 양산을 든 차림으로 대표되었다. 하지만 이런 신여성의 화장과 옷차림은 기생과 접대부에 의해서 먼저 유행되었고, 화장품 또한 그러했다. 일부 신여성의 자유연애 예찬으로 빚어진 비난 때문에 여염집 여인들은 종전보다 더욱 얇은 화장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1930년대 말 일본 유학생 오엽주에 의해 입술연지를 아랫입술에만 빨갛게 바르고 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는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 1940년대

1945년 8.15 광복을 계기로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 화장품은 사라지고, 일제 말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화장품업자 김동엽의 동방화학은 에레나랑 상표로 바니싱 크림등을 만들어 냈고, 이밖에도 모나미 크림, 스타 화장품 등의 국산 화장품이 생산되었다.

1940년대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장은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었다. 1940년대에 외국에서 도입된 현대식 화장법은 얼굴을 희게 하고 눈썹은 반달 모양, 볼연지와 붉은 입술을 하는 것이다. 해방 후의 화장 기법은 피부는 번들거리고 눈 화장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로 강조함으로서 강조한 눈 화장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제8강 일제시대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1. 히사시가미 스타일

히사시가미 스타일은 서양에서 먼저 유행하던 것을 1900년경 일본 여성들이 본떠서 유행시켰고,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다. 앞머리를 둥글고 풍성하게 앞쪽으로 내민 모양으로 벗고, 뒷머리는 치켜 올려 그 속에 수세미 같은 것을 집어 넣어 크고 둥글고 넓적하게 만들어 붙였다.

이는 ‘오가미상머리’, ‘북상투’, ‘말뚱머리’, ‘쇠뚱머리’라고도 불렸다.

2. 트레머리 스타일

실타례처럼 틀어져 있는 트레머리는 조선시대 기생들의 전유물이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에 보이는 기생들의 머리가 바로 이 머리모양이다.

트레머리는 고려 말 하회탈에서도 보인다. 조선조에 와 판머리가 유행되면서 초기부터 기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기방의 기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조선초기 관기들은 단조로운 판머리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트레머리로 정착되었다. 기방의 기생들은 일찍부터 트레머리를 받아들였다. 유행을 만들기도 하고, 선도하기도 하는 게 기생들이었다.

신윤복의 ‘단오풍정’에 보면 머리 뒤에서부터 큰 다리를 길게 양쪽으로 연결하여 그 끝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은 기생의 모습이 보인다. 트레머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그것을 실타례처럼 틀어서 머리 위에 얹으면 트레머리가 되는 것이다. 시술은 혼자 할 수 없다. 유운홍의 ‘기방’을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머리가 트레머리임을 잘 알 수 있다.

머리를 틀어 얹는 것도 그렇지만 고정시키는 방법 역시 그들 나름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트레머리는 절대 가체머리처럼 위로 올리지 않는다. 사방으로 두르듯이 얹어 놓는다.

가체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트레머리는 계속 남아 있었다. 부녀자들은 주로 담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생들은 아무 때나 단속할 수 있었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분명히 단속 대상이었지만 신윤복의 풍속화에도 태연히 등장하고 있다. 묵인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령 단속을 한다 해도 실효는 거두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기 풍속화가인 기산 김준근의 그림에 보면 트레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관기들은 아직도 트레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기방의 기생들은 한결같이 낮고 작은 쪽을 하고 있다. 트레머리는 단속을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이미 신분제도에 대한 인식도 철저하지가 못했고, 왕조의 권위 자체도 시들해져 있을 때였다. 변하고 있는 시대 의식이 트레머리의 모습을 사라지게 한 것이다.

제9강 화신미용실

1. 오엽주 미용실

오엽주는 한국 최초의 미용사로 알려져 있다. 최초로 미용실을 개업한 미용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명으로 전해지는 최초이고 그 이전에도 미용실이나 미용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그녀는 평양 태생으로 대판으로 건너가 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거친 후 일본 영화계에 진출했으나 실패한 후 돌아와 한국인이 처음 개업한 화신 백화점 이층에 미용실을 개업했다. 오엽주는 집념과 추진력이 강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갔던 것은 어릴 적부터 꿈이 영화배우였기 때문이며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 미용을 배워 귀국해서 개업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당시 잡지의 취재기사에 실려 있는 것이다. 잡지는 월간 『삼천리』로 파인 김동환이 창간해서 주관하고 있던 종합잡지로 1930년대엔 한국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특히 문화면의 기사는 지금도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이 잡지에는 1933년 5월호와 1934년 8월호, 두 번에 걸쳐 오엽주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첫 번째는 개업 바로 전날 여기자가 오엽주를 인터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용실을 직접 찾아가 취재한 기사이다.

따라서 이 기사들에는 오엽주의 당시 사진도 실려 있고, 미용실 안 사진도 실려 있으며 고객층, 미용실 내부의 광경 등이 짧지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오엽주 미용실은 이층 서편쪽, 구석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미용실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취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실내장치는 길게 모로 된 양식 방안 리발소 모양으로 아주 큰 체경을 삼사대 놓았고, 가로 눕는 긴 의자를 그 앞에 모다 놓았다. (중략) 내가 뒤따라 왔던 아까 그 간부씨는 늙은 청춘의 체면도 돌아볼 결 없이 한 모퉁이에 노인 응접 테블에 가서 앉더니 책상 위에 놓인 서양 미인들의 알밤을 보고 있다.

지금의 어느 동네 미용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 미인들의 알밤’이 비치되어 있는 것까지 똑같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올까?

제10강 신체제와 사치품금지령

1.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가. 사치품의 금지

1940년 7월7일 국가는 일부 신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핸드백, 다이아반지, 여우 목도리 등의 고급 사치품의 판매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또 이러한 사치품의 금지와 함께 당시 쌀 두가마 가격에 달하는 페퍼도 금지 시켰다.

나. 몸빼의 등장

전시에 맞는 검소한 차림을 강조하면서 일반 여성들에게 권장된 옷차림은 간단복이었는데, 이는 전시에 알맞게 간편한 옷차림을 하라는 것으로 남자들에게는 국민복을, 여자들에게는 일본 여자들의 노동복인 몸빼라는 바지를 입도록 권장했다.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공무원, 경찰을 동원하여 착용을 강압적으로 강요했으며 쌀 배급이나 노동력동원, 징용 등을 통해 보복했다. 몸빼는 원래 일본의 북해도와 동북 지방의 촌부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가거나 들에 일을 하러 갈 때 입던 바지였다.

다. 사치품금지령 이후 여성패션의 변화

사치품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여성들의 패션은 크게 변모했다. 반지, 팔찌 등 장식품은 하나도 볼 수 없으며, 여우 목도리, 빌로드치마, 페페년트가 사라져 갔다. 아울러 여성들의 의복, 헤어, 화장 등이 변화되었다.

라. 페페년트의 금지

신생활 운동과 함께 사치품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신여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던 페퍼가 금지되었다. 미용사들은 아무리 전쟁이 나고 굶어 죽어도 페퍼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숙했으나 일부 여성들은 페퍼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으로 치부되어 당시 만만치 않은 페퍼 요금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마. 페퍼 금지 이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페퍼를 금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당시의 페퍼 가격이 쌀 한 두 가마에 상당했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유도하고, 그리고 페퍼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이며, 사회적 기강화립의 이유에서 였다.

제11강 1950년대의 헤어스타일

1950년대는 특히 쥬리엘스타일, 본니스타일, 솟폼푸스타일, 롱헤어스타일, 피타팡스타일, 훼자컬스타일 등 다양한 명칭의 헤어스타일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통용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5년경에는 전반적으로 짧은 솟 헤어가 주조를 이루었으며, 롱 헤어라 하더라도 포니테일과 같이 소녀 느낌의 발랄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1. 1950년대 초·중반-숏 커트 스타일의 중성적 이미지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의 머리모양과 같이 머리를 짧게 자른 후 약간의 웨이브를 넣은 솟 커트 스타일이 1950년대 초반이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솟 헤어스타일은 더욱 짧아져 ‘이탈리안보이 스타일’, ‘랩번스타일’로 변화되어 갔다. 특히 앞머리는 이마를 반쯤 가릴 정도로 짧게 자른 후, 앞머리와 뒷머리는 목선과 귀가 보일 정도로 짧게 잘라 옆머리를 단정하게 귀 뒤로 넘기는 것이 포인트인 오드리 힐번 스타일, ‘슬픔이여 안녕’의 진 세버그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세계적으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가. 덕크테일 스타일

오리 꼬리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덕크테일 스타일’은 1954년경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의 10~20대 여성들 사이에 유행했다.

나. 라코로루 스타일

랩번 스타일에 이어 바로 나타난 것이다. 솟 헤어의 단조로움에 비해 좀더 호화롭고 감각적으로 꾸미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 포니테일 스타일

묶여진 모양이 망아지 꼬리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양 옆머리를 바짝 묶여 뒤에서 하나로 묶는 스타일이었다.

라. 폐이지보이 스타일

머리가 바가지 모양으로 앞, 뒤, 옆머리의 모든 부분이 안말음된 스타일이다.

2. 1950년대 후반-롱 헤어의 여성적 이미지

195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롱 헤어라는 분위기가 만연되었고, 롱 헤어나 머리가 짧다 하더라도 여성적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스타일이 유행했다.

제12강 미용교육의 역사

1950년대에는 별도의 미용교육기관이 거의 없었다. 당시 서울의 대표적 미용교육기관은 서울고등기술학교, 현대 미용학원이 있었으며, 1951년 부산 대신동에 설립된 대한군경원호고등기술학교, 1952년 7월1일 권정희 여사에 의해 정화학원으로 설립된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와 1954년 임형선 여사가 설립한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가 있었다.

해방 이후 미용실의 수효가 증가하고 1949년 미용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배출이 요구되었다.

1. 미용사 자격증의 개설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격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미용학원의 졸업증만 제시하면 누구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었다.

미용사 국가자격증의 시초는 1947년 미용사 자격시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49년 10월1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제1회 미용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 이후부터 미용실을 개업하려면 자격시험 합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미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미용학원 6개월 수료 후 6개월 이상 미용원에 종사한 사람.

둘째, 학원을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미용원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미용 업주의 인정이 필요)

셋째, 미용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수여)

초창기의 시험과목은 실기의 경우 핑거웨이브, 세트, 퍼머넌트였고, 이론시험은 환경위생 중 주로 소독법에 관한 것이었다.

제13강 1960-70년대 패션과 헤어스타일

1. 1960-70년대 한국 패션

가. 1960년대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혁명을 거치는 정치적 격동기였으며 정부의 집중적인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산업발달이 시작되었다. 거기에 아울러 섬유산업의 발달로 기성복 시장이 확대되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였다. 1960년 이전의 우리나라 여성의 의상은 1950년대 초반에 일어난 6.25 동란의 영향으로 밀리터리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전후 경제의 재건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치 상황도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패션에 눈을 돌릴 만큼 여유가 없었다. 5.16군사 혁명 후 만들어진 재건 국민운동본부는 생활 계몽운동을 통하여 간편하고 실용적인 여성의 신생활 복장을 등장시켰다.

1960년대 대중매체의 성장과 보급은 서구문화의 직접적인 전달 경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의식주를 포함한 외형적인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촉진시켰다.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한복개량이 활발히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한복이 주류를 이루었던 일상복이 양장으로 바뀌어 양장시대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 국내 최초의 패션쇼가 노라노에 의하여 개최된 이래 양재학원을 중심으로 패션쇼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복장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삶의 질과 연결되어 의복문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1966년 앙드레 김은 패션의 본 고장인 파리에서 패션쇼를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처음 선보였는데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감각에 부합하여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60년대 후반에는 통이 넓은 판탈롱 팬츠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남성 양복의 수요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1965년 남성복의 패션쇼도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나. 1970년대

1972년 단행된 10월 유신으로 1970년대 초기의 의류업계는 충격을 입었다. TV방송에서는 패션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고 호텔이나 공공장소를 빌려 열어야 할 패션 쇼가 제한을 받게 되어 원활한 패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장발의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삭발을 당하고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경범죄로 처벌되었다. 여성교육의 질적 성장, 매스미디어의 발달,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성향이 나타났으며 광고산업이 팽창하고 여가산업이 발달하면서 패션이 보편화되어 전반적인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국제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패션 사이클이 빨라져 외국과의 커다란 시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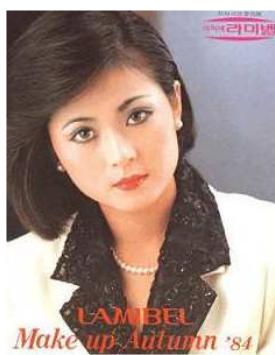
제14강 1980-1990년대 헤어스타일

1. 1980년대 헤어스타일(정보화·개성화의 시대)

19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한국 경제의 위기와 IMF구제금융체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경제의 본질적 모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MF의 한파는 한국의 경제를 비롯한 국민생활,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교복 자율화와 컬러 TV의 대중화로 색상의 사용이 다양해졌다. 수입이 금지되었던 화장품들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향상으로 1983년 이후 부분적 수입이 이루어졌고 1986년에는 전면 수입 자유화가 되었는데 이로써 색채에 대한 수요가 복식과 화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개성에 맞추어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보다 유럽의 영향을 많아 아이섀도우 화장이 더블 패턴(아이홀 화장)으로 입체감을 주고자 했으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브룩실즈의 자연적인 굵은 눈썹과 색조 화장은 더욱 세련되고 다양해졌고 동양인 피부에 잘 맞는 코랄색상(핑크와 오렌지의 중간)과 황금색 펄과 벽돌색의 조화로 세련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색조화장이 유행했다.

1980년대 초에는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핑크헤어와 디스코머리와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81년 미용인을 위한 미용회보를 발간되었다. 1982년에는 세계미용 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미용기구들이 발전을 되었고 1980년 말에는 긴 머리의 굵은 퍼머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더 불어 머리장식이 유행하였고 한때 영화 영웅본색의 장국영 헤어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배우 유지인과 영화영웅 장국영과 브룩실즈